

3. 예수님은 누구신가?

〈같이 읽을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태16:13-17)

1.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혹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적어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는지 알아봅시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예수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일곱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요 6:35).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8:12). 나는 양의 문이다(요10:7,9). 나는 선한 목자다(요10:11).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요11:25).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14:6). 나는 참포도나무다(요15:1,5)’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1,23절과 16:16절에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핵심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2.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먼저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21절을 써 보세요.

3.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지 다음의 성경을 읽고 써봅시다.

이사야 53:6

요한1서 4:10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게(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4. 바로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음의 성경을 써 봅시다.

요한복음 3:36

5. 이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성경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다음의 히브리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 봅시다.

히브리서 8:6

중보자

‘중보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중재인이라고도 하는데, 헬라어로 ‘메시테스(μεσιτης)’라는 단어입니다. 메시테스라는 말은 단순히 중재인이라는 의미보다 ‘**둘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자신이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에베소서 2:14-18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음의 성경을 찾아서 써 봅시다.

사도행전 4:12

디모데전서 2:5

예수님을 가리켜서 ‘중보자’라는 말 외에 또 다르게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다음의 성경을 찾아서 써 봅시다.

요한1서 2:1

‘대언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1서2:1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언자’라고 말합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톤(Παράκλητον)’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 14:16절에서는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라는 말과 ‘보혜사’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사실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언자’ 혹은 ‘보혜사’라는 뜻을 가진 ‘파라클레톤(Παράκλητον)’이라는 단어는 ‘변호사’ 혹은 ‘돕는 사람(helper)’라는 뜻을 가진 ‘파라클레토스(παράκλητος)’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변호해주신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의 죄를 들춰내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께 고발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변론해 주시는데 단순히 변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에게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변호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6. 성경은 ‘예수’라는 이름 외에 예수님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이름이 또 있는지 다음의 성경을 찾아서 써 봅시다.

마태복음 1:23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소리나는 대로 옮겨 적은 것)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7:1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독생자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자세하게 말씀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1: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입니다.

7.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음의 성경을 써 봅시다.

마태복음 16:16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자신들이 사람들에게서 들은 대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며,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알고 싶으셨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해서 예수님에게 큰 칭찬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을 하나씩 나눠서 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① 주(主) :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마태복음 1:21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인데 이미 예수님은 그 이름 가운데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② 그리스도 :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구별된 사람인 것을 표시하게 되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메시아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구원시켜 줄 이상적인 인물, 즉 ‘구원자’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면 ‘메시아 = 그리스도 = 구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관습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라

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 ③ 하나님의 아들 :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의 성경을 찾아서 써 봅시다.

마태복음 10:32,33

마태복음 11:27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다음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 봅시다.

요한복음 14:9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몇 가지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다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봅시다. 먼저 사도행전 10:38-41절을 읽어 봅시다. 그리고 다음의 성경을 찾아서 써 봅시다.

사도행전 10:39,40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과 같은 신성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을 대신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9.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흘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40일 동안을 더 계시다가 500여 성도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다음의 성경을 찾아서 써 봅시다.

사도행전 1:9

10.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의 성경을 찾아서 써 봅시다.

사도행전 1:11

예수님 재림의 목적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는데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즉 다시 오시는 목적은 분명한데 그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으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우리과 늘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믿는 자는 영생(천국)을 얻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벌(지옥)을 받게 하십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인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께서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